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연준 이사 Bowman, “연준, 인플레 극복에 신중한 접근 필요”
- Bloomberg: SF 연방은행 총재도, “제약적인 금리를 위해 시간 더 필요”

[미국 금융]
- WSJ: S&P 500, 예전 최고치로 다시 근접

[뉴욕시]
- Bloomberg: ‘전기 항공 택시로 7분 만에 맨해튼에서 JFK까지 이동한다’

[주택]
- CNN Business: ‘지금이 미국인들에게 집 사기 가장 안 좋을 때’

[물류]
- CNBC: 롱비치 항만의 화물 이동, 8개월째 상승
- Bloomberg: 버지니아 항만, 초대형 선박 운항토록 4억5천만불 투자

[전기차]
- WSJ: ‘전기차’ 경제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미중 경제]
- Bloomberg: 바이든, 중국 전기차에 관세 타격한다
- Bloomberg: 미·중 칩 경쟁,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N Business: 현대 및 기아 모델, 미국 자동차 도난 순위 1위 기록
- WSJ: 머스크,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에 5억 달러 투자한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Bowman Says Fed Should Move ‘Carefully’ to Reach Inflation Goal
연준 이사 Bowman, “연준, 인플레 극복에 신중한 접근 필요”

- 연준 이사인 Michelle Bowman은 연준이 인플레 목표 2%를 지향할 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carefully and deliberately)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같은 그의 발언은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할 때 서서히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그는 “인플레 목표를 달성하는데 신중하게 행동하므로 우리가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번주에 연준 관리들은 연달아 “높은 금리가 오래동안 유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Daly Says ‘More Time’ Needed for Restrictive Rates to Work
SF 연방은행 총재도, “제약적인 금리를 위해 시간 더 필요”

-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인 Maru Daly는 현재 금리가 경제를 제약하고 있지만 연준이 인플레를 목표대로 낮추려면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 그는 조지메이슨대학 토론에서 지난 16일 파월 의장이 언급한 내용을 재강조했다.
- 그는 향후 수개월간의 인플레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S&P 500 Is Getting Closer to Its All-Time High
S&P 500, 예전 최고치로 다시 근접

- 이달 주식의 랠리가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트레이더들이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 조치가 기업 수익 전망을 높이리라는 가능성에 배팅하는 상황이다.
- 주식은 약 3주째 상승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일부 미 경제 지표가 경제 둔화를 보이는 상황에서 연준이 9월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 실제 발표와 분석가들의 예상 간의 차이점을 측정하는 씨티그룹의 이른바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는 지난해 1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기업 실적이 좋고 특히 기술주를 비롯한 좋은 인공지능 기업들이 랠리를 이끌 수 있다”고 전망했다.
- S&P 500은 5,230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였던 5,254.35에 근접하고 있다. 다우존스는 8일째 상승 중이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베이시스 포인트 늘어난 4.48%에서 거래되고 있다.

WSJ 기사

[뉴욕시]

Bloomberg: Manhattan to JFK in 7 Minutes in 'Affordable' Electric Air Taxi
'전기 항공 택시로 7분 만에 맨해튼에서 JFK까지 이동한다'

-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Joby는 조종사와 함께 4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항공기'를 제조하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에서 공항까지 승객을 운송할 계획이다.

- 서비스의 주요 판매 포인트는 빠른 속도이다. 기업의 CEO JoeBen Bevirt는 "맨해튼 시내 헬기장에서 JFK까지 Joby 항공기를 타면 약 7분이 소요되는데, 이는 자동차로 50~75분이 걸리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빠릅니다."라고 말했다.

- 기업의 첫 번째 항공기는 1년 전에 제조되어 국방부에 인도되었으며, 연말까지 매달 한 대씩 생산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루에 한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Bloomberg 기사

[주택]

CNN Business: Americans say it's the worst time ever to buy a home
'지금이 미국인들에게 집 사기 가장 안 좋을 때'

-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21%만이 지금이 집 사기 좋을 때라고 응답했다. 반면에 대부분인 76%가 집 사기 나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작년의 기록적인 해당 응답률 78%에 약간 못 미친다.

- 집을 구매하려는 젊은이들은 고통스러운 주택 가격과 높은 모기지율에 힘들어 하는 상황이다. 반면에 코로나 전인 2019년 4월에 집사기 좋을 때라고 답한 비율은 61% 였다.

CNN Business 기사

[물류]

Bloomberg: Port of Long Beach CEO Says Cargo Is Up for Eight Months in Row
롱비치 항만의 화물 이동, 8개월째 상승

- 서부 롱비치의 CEO인 Mario Cordero는 4월 관련 수치를 보면 서부 해안으로 오는 교역의 흐름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수치는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8개월째 긍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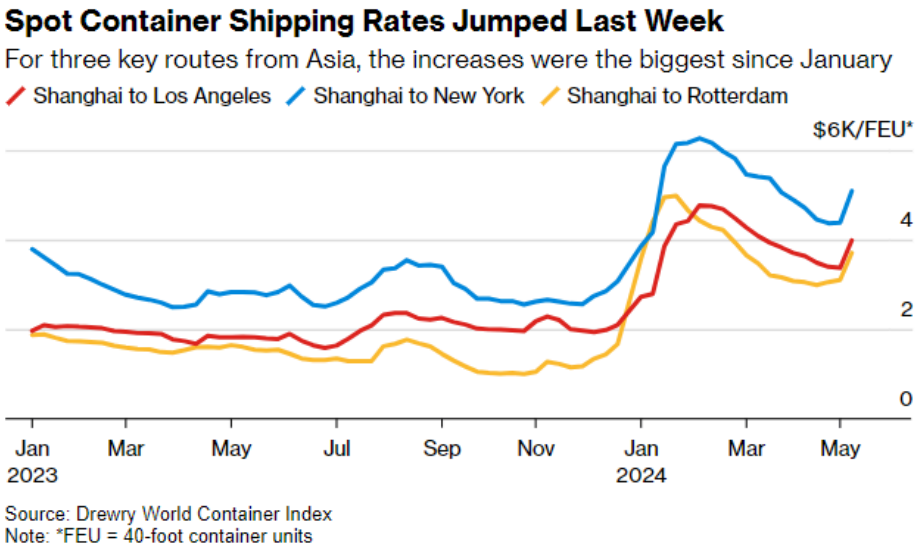
- 관련 조사에 따르면 롱비치와 로스앤젤레스 항만을 합친 1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23% 증가했다.

- 작년에 서부 항만의 항만 근로자와 고용주 측은 고용 관련 협상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겪었다. 작년 여름에 백악관이 지원으로 해결되었다.

Bloomberg 기사

CNBC: Inside the Port of Virginia's $450 million plan to lead in era of super-sized ocean containerships
버지니아 항만, 초대형 선박 운항토록 4억5천만불 투자

- 버지니아 항만 인근에는 월마트, Lowe's 등 대형 소매 체임이 있다. 이 항만은 내년 초까지 4억5천만달러를 들여 초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넓이와 높이를 확장하는 준설 공사를 끝낼 예정이다.
-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ULCVs) 두 척이 동시에 통과할 수 있게 되어 동부 해안에서는 가장 높고 가장 깊은 항만이 될 예정이다.



CNBC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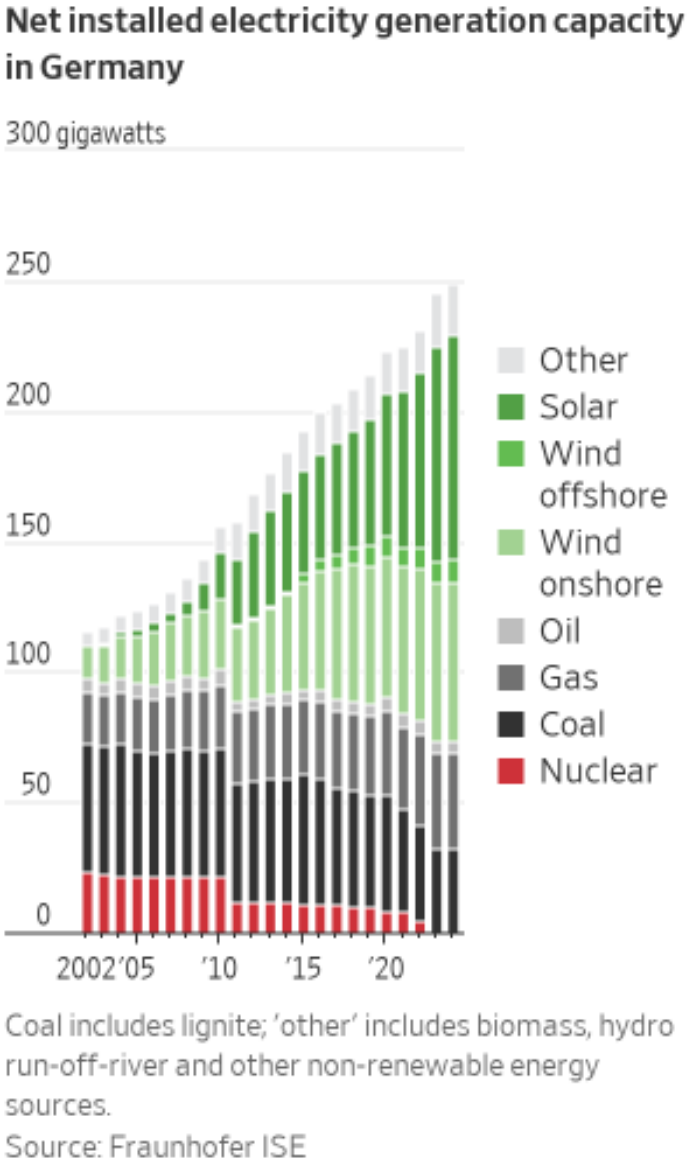
[전기차]

WSJ: Does Your EV Hurt, or Help, the Economy?
'전기차' 경제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 전기차가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전기차를 구동하는 전기 생산 방식 및 배터리 재료의 출처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탄소 배출량 측면에서는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
- 그러나 일부 서구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일자리 손실, 높은 공공 부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축소했다. 환경에 도움이 되더라도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하면 대중의 지지를 잃을 수 있기 때문.
- 전기차는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뢰침(lightning rod)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정책이 기술의

변화보다 더 빠르게 의제를 추진하여, 환경 비용을 경제적 비용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 그 결과 '공급 쇼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례로, 2000년 이후 독일은 풍력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발전 용량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전력 수요 자체는 5% 감소했다. 두 에너지 시스템이 동일한 경제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업계의 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독일의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



WSJ 기사

[미중 경제]

Bloomberg: Biden Set to Hit China EVs, Strategic Sectors With Tariffs
바이든, 중국 전기차에 관세 타격한다

-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주에 중국 관세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결정은 트럼프가 요구한 관세 인상을 거부하면서도 새로운 부과금을 통해 주요 전략 부문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결정은 2018년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한 301조 관세 검토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 전지 등의 주요 산업에 초점을 맞춘 새롭고 높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의 다른 중국 관세는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발표가 지연될 수 있지만, 이번 결정은 중국과의 경제 경쟁 속 바이든의 중요한 움직임으로 여겨진다. 바이든은 지난달 중국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과 중국 조선 산업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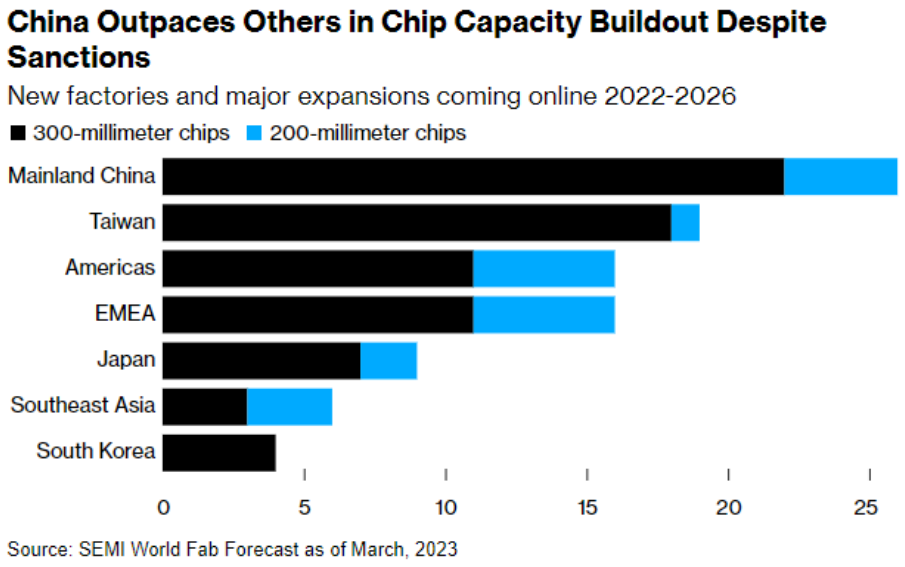
Bloomberg: The US-China Chip Contest Is Entering a New Phase
미·중 칩 경쟁,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 반도체 공급망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 반도체 산업 협회에 따르면 '반도체·과학법'은 미국 국내 칩 생산 하락을 반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투자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1천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 하지만 중국 또한 칩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공급망 구축을 위해 약 30개의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건설량보다 많은 수준이다. 화웨이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과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또한 반도체 부문에서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 이러한 징후는 미중 간의 칩 경쟁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환은 서구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바이든에게는 또 다른 골칫거리로 여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N Business: Hyundai and Kia models topped US auto theft rankings last year
현대 및 기아 모델, 미국 자동차 도난 순위 1위 기록

- 국가보험범죄국(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모델이 가장 많이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 Elantra 소형차는 작년에 4만8천건 이상 도난당했으며, 현대 Sonata 세단은 4만3천건 가까이 도난당했다. 기아 Optima 세단은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 3만 건 이상으로 밝혀졌다.
- 올해 초에 발표된 고속도로 손실 데이터 연구소의 보고서(HLDI)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까지 구형 현대 및 기아 모델의 도난 건수는 2020년 대비 1천% 증가했다.
- 특히 2023년 이전에 제작된 일부 구형 현대 및 기아 모델은 차량 도난에 취약하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버튼만 누르면 시동을 걸 수 있는 차량과 달리 턴키 시동 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다른 차량보다 도난당할 가능성이 약 2배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CNN Business 기사

WSJ: Musk Says Tesla Will Spend $500 Million on Charging Network, Following Layoffs
머스크,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에 5억 달러 투자한다

- 테슬라가 올해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5억 달러 이상 지출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슈퍼차저' 부문을 담당하던 직원들 대부분이 해고된 후 몇 일 만에 발표된 것.
- 금요일 CEO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테슬라는 올해 수천 개의 새로운 충전기를 설치하고 슈퍼차지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이 비용은 새 부지 확보와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것으로, 이보다 많은 운영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올해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는 4월에 전 세계적으로 인력의 10%를 축소한다고 밝혔고, 전기차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로 인해 부진한 차량 판매량을 기록했다.

WSJ 기사

美 10년물 국채 금리 방향은…불확실성에 예측 엇갈려

'환율 방어' BOJ의 미 국채보유분 감소…"지난주 약 9조엔 환율방어에 써"

연초 예상과 달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미뤄지면서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시장 불확실성 고조로 향후 국채 금리 방향을 둘러싼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올해 들어 미 국채 금리를 가장 정확히 예측해온 전문가 가운데 바클리캐피털의 미 금리 전략 부문장 안술 프라단과 산탄데르US 캐피털마켓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스탠리의 견해가 엇갈린다고 소개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급격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지난해 말 시장의 일반적 예상이었는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경제 지표도 탄탄하게 나오면서 이러한 관측은 힘을 잃은 상태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